

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관련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8월 13일(목) 14시 30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*를 천안 시청에서 개최하였다.

* (참석기관) 보건복지부, 교육부, 경찰청, 충청남도, 천안시, 충남교육청 등

이번 회의는 최근 천안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과 관련하여, 보호조치 및 정보연계 과정 등 현장 보호체계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.

이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 대응을 복기하여, 아동보호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가 되지 못했던 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을 되짚어보고, 경찰의 접근금지 신청 기각 등 경찰·법원 등 사법 절차와 연계된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.

또한 취학의무 면제 등을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의 관리체계와 위험징후 파악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, 유관기관 정보 공유 및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.

현수엽 제1차관은 “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” 라며, “고위험군 아동이 보호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계부처 회의 개요

담당 부서 <총괄>	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	책임자
		담당자
<취학>	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	책임자
		담당자
<학대범죄>	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	책임자
		담당자
<지자체>	충청남도 천안시 아동보육과	책임자
		담당자
<교육청> 아동학대	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	책임자
		담당자
<교육청> 취학학적	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	책임자
		담당자

□ 회의 개요

- (목적) 천안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아동보호체계 대응
한계 파악 및 개선 사항 현장 의견 수렴
- (일시) '26.8.13.(목) 14:30
- (장소)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실(3층)
- (참석자) 복지부, 교육부·교육청, 경찰청, 천안시 등 17명
 - (보건복지부) 현수엽 제1차관, 인구아동정책관, 아동학대대응과장 등
 - (교육부·교육청)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장, 충청남도교육청 초등
특수교육과장,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등
 - (경찰청)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, 가정폭력정책계장 등
 - (지자체) 천안시장, 충청남도 아동돌봄과장·아동보호팀장, 천안시청
아동보육과장·아동보호팀장,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
 - (국가아동권리보장원) 아동학대예방본부장, 학대예방기획부장 등

□ 세부 일정

시간		주요내용
14:30 ~ 14:35	5'	인사말
14:35 ~ 15:25	50'	사건내용 토의
15:25 ~ 15:30	5'	마무리말